

NEWSLETTER



CONTENTS

- ▶ 국제지원과 Uni Buddies Club
- ▶ 국제지원과 K-컬처토크 (K-Culture Talk)
- ▶ 국제교류과 외국인 학생 지원센터
- ▶ GTS Career Passport 2026
- ▶ 체육교육과 현직자 직무 멘토링
- ▶ 제12회 INU 공학 페스티벌
- ▶ 학생 AI 서포터즈 3팀 AI:ON

학생이 직접 꾸리는 동아리, 함께 넓히는 유학생할

국제지원과 Uni Buddies Club



국제지원과는 유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생 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Uni Buddies Club**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하고, 한 학기 동안 관심 있는 활동을 기획해 실행하는 동아리 프로그램입니다.

활동 분야는 여행과 스포츠, 봉사, 공예 등으로 다양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하고 싶은 활동을 정하고 함께 준비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국 학생도 동아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유학생과 함께 지역 축제나 전시회, 야구 경기 관람 등 관심 있는 활동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한국 생활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

국제지원과 담당 선생님 인터뷰

Q.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국 학생도 함께 활동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지역 축제, 전시회와 야구 경기 관람 등 하고 싶은 활동을 직접 계획하며 글로벌 소통 경험을 쌓습니다.



Q.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은 유학생 활동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활동 지원금을 통해 개인 비용만으로 부담스러웠던 여행이나 체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생활을 더 친숙하게 느끼는 기회가 됩니다.

참여학생 인터뷰

Q.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한강에서 함께 자전거를 탔던 경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고 친구들과 활동을 계획하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모임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험은 더 공부하고 싶다는 동기가 되었고, 지원 덕분에 여행과 체험의 기회도 넓어졌습니다.



Q. 참여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한마디

친구들과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 함께 계획하고 소통하면서 우정을 쌓고 한국어를 연습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같은 캠퍼스에서 시작하는 문화 교류

국제지원과 K-컬처토크(K-Culture Talk)



국제지원과의 **K-컬처토크**는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외국어로 소통하며 한국 문화를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내에서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이 수업 밖에서도 만나 대화할 수 있도록 교류 기회를 연결합니다.

프로그램은 유학생과 한국 학생 모두에게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담당자에 따르면 전년도 시범 운영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올해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정규 프로그램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번 취재에서 한국 학생과 파키스탄 출신 유학생은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을 모르는 학생에게 소식이 더 널리 전달되길 바랐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소개할 수 있도록 **활동시간이 더 길어지기를** 희망했습니다.

“낯설을 친숙함으로” 대화하며 넓어지는 문화 이해

국제지원과 담당 선생님 인터뷰

Q.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기대하는 교류 효과는 무엇인가요?

유학생과 한국 학생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평소 낯설게 느껴졌던 나라와 문화를 직접 만나 대화하면서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Q. 한국 문화를 함께 이야기한다는 점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한국 학생이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국 학생이 바라본 한국 문화도 함께 나눕니다. 한국 학생에게 당연했던 일상이 다른 시선에서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문화와 가치관을 공유**하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참여학생 인터뷰

Q. 참여 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한국 학생: 외국인이 말을 걸면 당황했지만 이제는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함께 한국 음식을 먹고 걸었던 시간도 기억에 남습니다.

파키스탄 학생: **한국 문화**를 직접 배우고 싶어 참여했습니다. 활동 시간이 더 길면 좋겠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한국 학생: 트리플스트리트에서 함께 한식을 먹고 주변을 산책했던 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파키스탄 학생: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던 활동이 즐거웠습니다. 참여 전보다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진로 로드맵에서 포트폴리오까지, 저학년부터 시작하는 진로 설계

GTS Career Passport 2026



GTS학부는 저학년 학생들이 전공과 직무의 연결을 탐색하도록 **Career Passport 2026**을 기획했습니다. 무역·물류·통상부터 금융과 문화콘텐츠 등 진로 선택의 폭이 넓은 만큼, 대학생 초기에 방향을 탐색하고 경험을 쌓는 **출발점**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프로그램은 회차별 활동이 이어지도록 구성했습니다. 1회차에서는 Career Passport 발급과 진로 로드맵 작성으로 자신의 위치와 관심 분야를 점검하고, Business Model Simulation 팀 활동에 이어 이번 3회차는 **AI 이력서 작성·셀프브랜딩을 연결**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후에는 분야별 직무체험과 동문 멘토링, 포트폴리오 설계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운영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학생들은 회차별 경험과 결과물을 Career Passport에 축적하고, 이를 자신의 진로계획과 포트폴리오로 이어가게 됩니다.

첫 이력서의 '빈칸'도 다음 경험을 찾는 출발점

프로그램 지도 교수님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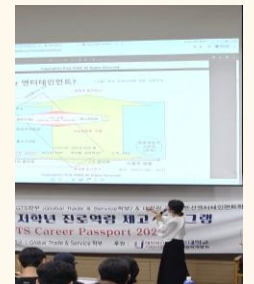
Q.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저학년에게도 이력서 작성이 도움이 되나요?

이력서는 완성된 경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만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현재 어떤 경험이 있고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칸도 실패가 아니라 앞으로 채워갈 방향을 알려주는 정보**가 됩니다.

참여학생 인터뷰

Q. 초기 활동에서 인상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교수님들이 돌아가며 자신의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무역이라는 큰 틀 안에서도 물류·통상·국제금융 등 여러 분야를 접하면서 제가 **흥미를 느끼는 진로**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 기대됐습니다.



Q. AI 이력서 작성에서 학생들이 특히 경험해보길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AI가 제안한 문장을 자신의 실제 경험과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과장되거나 획일적인 표현은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면서 경험과 강점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길 바랍니다.

Q. 앞으로의 활동에서 기대하는 점은?

학교 활동이나 대회에서 얻은 작은 경험도 희망하는 직무와 연결해 정리된 문장으로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AI를 활용해 경험과 직무 사이의 연관성을 더 잘 정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본기부터 실전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체육교육과 현직자 직무 멘토링



체육교육과는 취업역량개발과에서 운영하는 **현직자 직무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임용시험 준비와 전공·현장 실무 강화를 위한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사전 안내에 따르면 인천체육회 감독을 멘토로 초청해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과 실습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됐습니다.

멘토는 인천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2014년 강의를 맡으며 체육교육과와 인연을 맺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졸업생 참여자 인터뷰에서는 중등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전문가의 실기 지도와 함께 준비하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운영 계획은 오리엔테이션, 실기 훈련,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멘토는 특강 형식의 제한된 시간 안에 학생 개개인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기본기부터 전문 실기까지 다루기 어려운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이러한 운영 여건 속에서 어떤 지도와 준비가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엇보다 부상 없이” 함께 이어가는 임용시험 준비

멘토 강사님 인터뷰

Q. 학생들의 실기 역량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지도하시나요?

선수와 학생은 신체 상태와 이론 이해도가 달라 같은 훈련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학생 수준에 맞는 기본적인 트레이닝 원리**를 전달하고, 기초 이론과 실기를 임용시험에 필요한 전문 실기로 연결합니다. **개인의 능력과 장단점에 맞춰 피드백**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Q. 멘토로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필기 공부도 중요하지만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운동을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기 종목을 준비하다 부상을 겪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부상 없이 실기 역량을 높여 시험 준비에 도움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멘티 참여학생(졸업생) 인터뷰

Q. 멘토링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것은?

혼자 연습할 때 놓치기 쉬운 실기의 세부 요소를 전문가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매번 지도를 받을 수는 없으므로, **스스로 연습할 수 있는 훈련 루틴과 워밍업 방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소규모 멘토링을 통해 어떤 점을 기대하시나요?

같은 그룹이 임용 준비 과정까지 이어졌으면 합니다. 같은 팀으로 준비운동과 훈련을 함께하면서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준비하는 친구들이 좋은 결과를 얻고, **부상 없이 준비를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만나는 공간

국제교류과 외국인 학생 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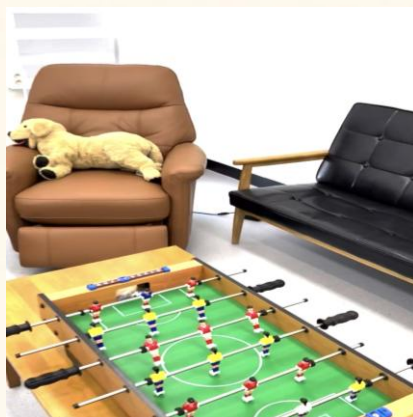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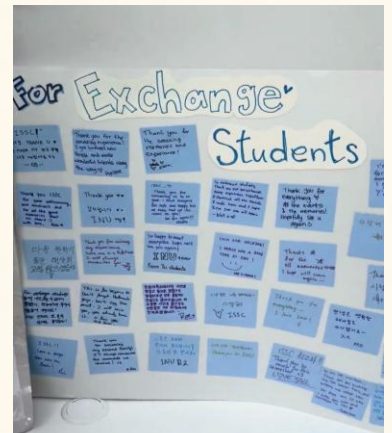
국제 학생회 ISSC와 함께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외국인 학생 지원센터**가 소개 영상에 담겼습니다. 11호관 406호에 위치한 센터의 모습을 따라가며, 센터의 내부 모습과 학생들이 남긴 메시지를 통해 교내 공간을 소개합니다. 학생들이 함께 둘러앉는 테이블과 휴식 공간, ISSC 굿즈, 테이블 축구 게임도 마련되어 있어 공간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호관 406호에서 만나는 캠퍼스의 일상

눈길을 끄는 것은 벽면에 모인 학생들의 활동 사진과 손글씨 메시지입니다.

'For Exchange Students'라는 문구 아래에는 여러 언어로 적힌 메모가 붙어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한 경험, 인천대학교에서 보낸 시간, 도움을 받은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어 학생들의 교류를 보여주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센터 소개 숏폼에서는 입구와 내부 공간을 영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에 담긴 사진과 함께 영상을 확인하며, 센터의 모습과 그 안에 남아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 시설 소개 영상이 궁금하다면?

센터 소개 영상 보러가기

배움에서 연구로, 진로까지 연결한 INU 공학페스티벌

제 12회 INU 공학페스티벌



공학의 현장을 캠퍼스에서 만나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INU 공학페스티벌**은 공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 진로 탐색을 함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공과대학과 공학교육혁신센터를 비롯한 교내 다양한 부서들이 참여했으며, 주요 기업의 현직자와 졸업생 선배들도 함께해 학생들에게 **전공과 직무를 연결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공과대학 학부 연구팀 100여 팀과 공학교육혁신센터 경연팀 30여 팀이 참여해 연구성과 발표와 경연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연구실 탐방 프로그램인 OPEN LAB, 학과 홍보 부스, 선배 멘토링 및 취업 상담, 창업동아리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연구 활동과 진로 탐색을 지원했습니다.

공과대학 전체 학과의 교육과 연구개발 활동을 소개한 이번 축제는 **학생들이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전공의 활동 분야와 앞으로의 진로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과 학생 AI 서포터즈

학생 AI 서포터즈 3팀 AI:ON



▲ 대학혁신지원사업 공식 캐릭터 "인혁이"

학생의 시선으로 듣고 전하는 교내 프로그램 이야기

학생 AI 서포터즈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관련 프로그램**을 취재하고, 카드뉴스와 숏폼, 뉴스레터를 통해 학생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운영 취지를 듣고 참여학생의 경험과 의견을 함께 살펴보고,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 알아보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국제지원과 교류 프로그램을 포함해 다양한 현장을 담았습니다. 프로그램마다 활동 방식은 달랐지만,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이 어떤 계기로 참여했고 무엇을 경험했는지**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운영 정보와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전하겠습니다!

더 많은 프로그램 소식은 @inu_innovation_에서 확인하세요!



INU_INNOVATION_

2026학년도 인천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NEWSLETTER



발행일

2026.10.

발행처

인천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팀장

고영현

팀원

강현구 김지우 문성인